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본 마을환경 개선 사업 - 마을 미술사업의 담을 중심으로 -

박은영·김현*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Village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s of Community - Focused on walls in village art projects -

Park, Eun-Yeong • Kim, Hyun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Joongbu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nkook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orient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by establishing desirable aesthetical environments and reorganizing the residents' communal way of lif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village art projects. To investigate how the implementation of village art projects influence community and communication, the author analyzed changes in walls made by the implementation of actual projects in Anhyeon Village in Gochang, Dongpirang in Tongyeong, and Byeolbyeol Village in Yeongcheon. The community was analyzed from the view points of locality, communal ties, and communic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Anhyeon Village in Gochang expressed its locality with chrysanthemum, poems and local figures. Similar walls were built across the village to strengthen ties among the residents, and portraits used as doorplates represented communication among them. Various paintings of seas, flowers, and poems were seen in Dongpirang in Tongyeong, which were thought to be representations of its locality and the friendliness of hometown in the less favoured area. Wall paintings played pivotal roles in this village to impart to the residents essentials that should be kept to eliminate inner walls in their minds and ensure open communications. In Byeolbyeol Village in Yeongcheon, locality was presented with common farm village landscapes in various materials, patterns and formativeness. Village-wide reinforcement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ties in the community rather than forming boundaries against outside worlds. Cultural and artistic elements structured mental walls that made people not aware of the presence of physical walls.

Key words : Communication, Identity, Locality, Social Interactio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자체들은 문화예술을 사회발전의 핵심적인 가치로 받아들이면서 도심재생, 문화도시, 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이름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김

혜진, 2010). 초기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도시구조물을 통해 미술의 심미적 가치에 집중하였으나 소통과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미술의 사회적 가치(공주형, 2011)에 대한 역동적 전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격이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진행되었던 프로젝트들은 지역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유지보수 등의 문제로 공공미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멸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미술은 단순히 시각적인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닌 커뮤니티(communitiy)의 역할로서 공공성, 소통, 형평성,

Corresponding author : Kim, Hyun

Tel : 041-550-3635

E-mail : hyunkim@dankook.ac.kr

참여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독자적 특성을 창조하며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마을 미술사업으로 발전되어 가야 할 것이다. 마을 미술사업의 시행은 새로운 물리적 환경을 창조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커뮤니티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기존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더불어 외부 방문자와의 소통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패가 결정된다.

커뮤니티의 형성과 소통 수단으로서 개방과 폐쇄의 정도를 결정하고, 인간과 공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며 원활한 접촉을 위한 연결공간의 구성적 특성을 제공하는 것이 경계이다. 경계는 영역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공간적 성격을 갖게 되며 형태적 경계요소로서 공간을 확장하거나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경계는 물리적인 개념에서 단순히 선적 요소인 담¹⁾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적 측면인 심리적인 담으로서 커뮤니티의 형성과 소통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마을 미술사업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많은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식인 담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주민, 외부 방문객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 미술사업의 시행으로 바람직한 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재구성하여 커뮤니티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마을 미술사업의 시행이 커뮤니티의 형성과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을 미술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담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례지를 대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미술, 조경, 농촌계획, 지역개발 등에 관한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이론적인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 미술사업과 커뮤니티의 개념 및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사례대상지를 선정하여 분석틀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통해 지역성, 공동체의 결속, 소통의 관점에서 커뮤니티를 해석하고 마을 미술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담과 커뮤니티의 관계를 모색하였다.

사례대상지의 선정은 담을 중심으로 경관 개선과 마을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 곳 중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으며, 커뮤니티의 특징이 차별성

과 특수성을 나타내는 곳으로 비교하여 해석가능한 마을 3곳을 선정하였다. 사례대상지는 문헌조사와 함께 2007년에서 2013년까지 각 대상지별 2회 이상의 현장조사와 관찰조사를 통해 정성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사례는 고창 안현마을, 통영 동피랑, 영천 별별마을 세 곳이다. 선정이유는 첫째, 고창 안현마을은 공공미술을 통해 녹색 농촌체험 마을 사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사례이며, 주민의 참여와 마을 공공미술 소재를 철저히 마을 현장에서 찾은 점 때문에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둘째, 통영 동피랑은 철거 위기에 놓인 마을을 살리기 위해 지역 환경개선을 한 경우로 지역의 잠재성을 살렸으며, 마을 미술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마을가꾸기와 연관된 활동들로 커뮤니티 형성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어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셋째, 영천 별별마을의 경우는 문화 생산지역이면서 문화소비지역으로 마을주민과 외부 방문자들이 예술을 통해 통합적이고 심리적인 면에서 새로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Table 1. Selection of subject sites

구분	도시	추진 연도	특징
안현 마을	고창	2006	담의 벽화 초기작, 지역성 반영
동피랑	통영	2007	개발 계획저지, 지역 환경 개선
별별 마을	영천	2011	문화콘텐츠 발굴, 예술과 결합된 소통기회

II. 선행 연구 및 이론적 고찰

1. 공공미술의 개념 확대와 마을 미술사업의 의미

사전적 의미에서의 공공미술 개념은 퍼블릭 아트(public arts) 즉, ‘공공의 예술’을 공공에게 개방된 장소에 설치된 미술품을 말한다. 공공미술이란 말 그대로의 해석을 본다면 ‘미술’ 또는 ‘예술’과 ‘공적인 가치’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공공미술이라고 할 때의 미술은 일단 근대적인 미술 개념인 사적 미술의 경계를 넘어선 것을 가리킨다(유성하, 2011).

최근 들어 정책의 변화나 인식의 변화에 따라 공공미술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김혜진, 2010; 오승희와 한영호, 2011). 기존의 관주도형의 문제점을 장소와 소통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과정(공주형, 2011; 홍현철,

2011)과 지역성과 맥락성 반영의 문제점을 들어 지역특성에 따른 공공미술의 개발방향 논의와 함께 공공성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안현정, 2010; 이슬기, 2012; 남기범과 남미영, 2013). 공공미술은 그 개념이 생성될 무렵 ‘작품’이라는 유형물에서 현재의 마을 미술사업은 지역민과의 ‘커뮤니티의 형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물로 진화하고 있다. 마을 미술사업은 공공미술의 개념을 확장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참여와 소통에 의미를 두고, 또한 미술을 매개로 한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에 중점을 두어 디자인의 사회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안성, 지역성을 구현하는 사례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 환경 개선을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지역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 형성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부활시킬 수 있다.

2. 커뮤니티의 정의와 평가도구

커뮤니티라는 것은 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유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Hillery, 1955)으로, 개별적인 의식보다는 집단 의식이 중요시되고, 개인의 가치보다는 집단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삶의 협력체라 할 수 있다(최병두, 2000; 성희자와 전보경, 2006; 이원훈과 이창수, 2007). 공동을 의미하는 ‘common’과 공동자치체를 의미하는 ‘communal’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의미를 지닌 ‘communication’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다(김현진, 2010). 그러므로 주민을 대상으로 지리적 영역의 공유,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 유대감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커뮤니티가 함축하는 정서적 내용은 공유, 친교 또는 친목의 뜻으로 부터 유추되는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친밀감, 유대감 등이다.

이러한 커뮤니티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인 커뮤니티의 정의에 대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접근은 힐러리(George A. Hillery)에 의해서였다(방성희와 이명희, 2011). 그는 “커뮤니티의 정의들: 합의의 영역들(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이라는 논문의 연구에서 95개의 정의 중 64개가 지리적 영역(Territory), 공동의 결속(Common ties),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커뮤니티의 평가에 관한 내용 중 선행연구에서 천현숙(2001), 조인숙과 신화경(2010)은 물리적 요소, 비물리적 요소, 인적요소를 커뮤니티 평가 요소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평가 항목은 지역적 특성,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감정과 의

식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하성규와 김재익, 1997; 김현진, 2010).

3. 마을 미술사업과 관련한 커뮤니티의 의미

마을이란, 물리적 범위만을 의미하는 동네와 달리 마을 사람들과 마을 공동체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공동체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을 모색하는 주체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마을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기존 커뮤니티 와해 문제는 현시대의 주거문화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 미술사업은 그것이 놓이는 장소의 맥락 중시와 함께 소통의 입장으로 삶의 근간이 되는 공동체의 의미를 읽어내고 지역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표출한다. ‘주어진 바로 그 장소의 적합성(appropriate to the immediate)’과 ‘공동체의 풍부한 반응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공주형, 2011).

마을 미술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내고 발굴하여 지역성(locality)을 강화함으로써 일반주민들에게 단순한 문화향유자에서 생산자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내재하고 있는 지역 아이덴티티를 공동의 인식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의 기능적 구획과 함께 공동체의 바람직한 교류가 성립되는 곳이 경계로서 즉, 담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인간은 인식과 행태적인 측면에서 주어진 사회적, 물리적인 환경 특성에 지역성을 반영하게 된다(홍이식과 정재용, 2004).

이웃과의 공통적인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정체성과 커뮤니티를 재형성해야 하는 관심과 공동체 문화에 주목하고 있다(홍성규, 2009). 예술 활동을 통해 해당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고취하며,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제작하게 하고, 그에 따라 변화를 이루어내는 데는 추상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을 창조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주민 사회에 공헌하게 된다. 주민들의 경험과 인식을 연결하며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동의 연대를 만들어 내게 된다.

커뮤니티에서 장소는 개인들이 ‘공적’으로 재구성되며 드러나는 공간이다. 개인의 생계를 위해서 유지되고 보호되어야 할 사적공간이 다원적 주체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함께-살기를 모색하는 장소이다. 소통은 나를 드러내고 남을 발견하고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진리를 공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담을 매개로 하여 상실되었던 인간의 대면적 만남과 관계, 경험을 복원할 수 있다(이희량, 2013). 이것은 주민 간 혹은 주민과 외부 방문자 사이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의

삶으로 적절한 개방과 적당한 소통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위한 공동체 결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셋째, 마을 미술사업의 담을 통해 주민과 외부 방문자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III. 사례분석

1. 사례분석의 틀

사례분석을 위한 대상지는 각기 규모나 구현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분석의 틀을 설정하여 여러 다른 차원의 내용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커뮤니티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항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Table 2와 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항목은 지역적 영역, 공동의 유대, 사회적 상호작용이었다. 지역적 영역은 지리적 경계나 물리적 배경, 공간성 등으로 지역경관과 자원이 반영되어 지역의 맥락에 적절한 지역성으로 나타난다. 공동의 유대는 공동의 감정이나 관심, 동질적 문화나 태도, 아이덴티티와 같은 문화의 가치를 통해 유대관계를 갖는 공동체 결속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교류, 조직, 활동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상호교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일상생활에 대한 공공성과 개방성을 가지면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분석항목을 본 본문의 목적에 맞게 적용해보면 Figure 1과 같은 세 가지의 분석내용을 가지게 된다. 첫째, 마을 미술사업을 통한 담에 지역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둘째, 담의 변화와 커뮤니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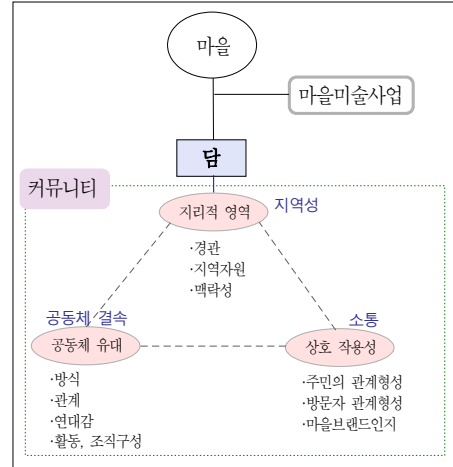


Figure 1. Analytical framework

2. 사례분석

가. 사례대상지의 마을 미술사업 개요

고창 안현마을은 전북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에 위치하며 2006년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 마을로 지정되었다. 새마을 운동 때 엮은 슬라브 지붕이 오래되어 비가 새고, 담도 허물어지자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를 소

Table 2. Previous studies related to communities

구분	분석항목	출처
커뮤니티의 정의	· 지리적 영역 · 공동의 결속 · 사회적 상호작용	Hillery(1955)
커뮤니티의 영역별 요소	· 지리적 영역 · 사회적 영역 · 문화적 영역	김정오(1991)
커뮤니티 평가요소	· 물리적 요소(시설, 공간) · 비물리적 요소(프로그램, 관리) · 인적 요소(소속감, 애착심)	천인숙(2001) 조인숙과 신화경(2010)
커뮤니티의 특성과 표현양상	· 지역성 · 공공성 · 개방성 · 상호작용성	방성희와 이명희(2011)
커뮤니티의 주거환경개선	· 지역적 · 사회적 상호활동 · 공동의 감정, 의식	하성규와 김재익(1997) 김현진(2010)

재로 국화와 시로서 마을전체의 담을 단장하였다(박은영, 2008). 낡고 침체된 마을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소재를 활용해 공공 미술로 접근하여 길이 1km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을 벽화를 조성하였다.

통영 동피랑은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과 태평동 일대로 ‘동쪽의 벼랑’이라는 뜻의 작고 오래된 마을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통영항과 중앙시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외지 하층민들이 기거하면서 조성되었다. 산동네라는 인식과 주거환경까지 악화되면서 통영시는 2006년 도시계획을 통해 재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역단체 ‘푸른통영 21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저지를 위해 2007년 10월부터 시장에게 1년의 유보와 시간을 요청하였고,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눈에 띄는 동피랑의 특성을 살려 각 주택들의 담을 활용해보기로 하였다. ‘색과 그림이 있는 골목’이라는 주제로 1차 벽화 공모전을 벌였고, 공모전 이후 철거계획이 미루어지고 2008년 7월 재개발 대상지에서 보존대상지로 변경되었다(이영창과 김근호, 2013). 2010년 4월 ‘동피랑 블루스’라는 주제로 2차 벽화 공모전이 개최되었고, 통영시에서는 동포투의 계획을 취소하고, 동포투 복원에 필요한 집만을 철거하였다.

영천 별별마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2011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일상생활 공간을 공공미술로 가꾸는 사업’으로 평범하던 지역을 대규모 미술마을로 바꾸어 놓았다. 지역의 정체성을 문화콘텐츠로 발굴하여, 이를 예술로 승화시켜 문화예술향유 증진과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경북 영천시에 조성된 ‘신 몽유도원도다섯 갈래 행복길’은 화산면과 화남면 일대 마을의 문화유산과 자연풍광, 주민의 일상을 예술작품과 연계하여 미술마을을 조성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다섯 개의 길을 중심으로 마을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

나. 마을 미술사업을 통한 담의 지역성 설정

고창 안현마을의 마을구조는 인구 72명의 작은 시골마을로 선형의 도로 패턴에 주도로가 앞 뒤에 놓여 있으며 마을 안길이 중심을 지나면서 주도로와 접하고 있다. 멀리 바다와 소요산의 외부경관 요소가 있으나 지형이 평평하여 인식하기 어렵고 주변의 미당 서정주 생가와 시문학관 정도만이 인지되며 외부 방문자가 거의 없는 농촌마을이었다. 마을에서 국화꽃 축제가 열리는 것에 착안하여 담의 벽화에 미당의 시 「국화옆에서」와 관련지어 국화와 미당의 시를 지역자원으로 설정하였다. 국화꽃과 나비, 인물, 언어의 네유형으로 된 그림에 실제 초화를 식재하여 담과 지붕에 지역성을 나타내었다.

통영 동피랑은 23가구가 모여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오랜 주거지역인 대표적인 산동네이다. 좁은 골목길은 갈래가 수십 개로 구불구불한 오르막의 나선형 형태이다. 외부의 경관은 골목길을 다 오르면 강구항과 중앙시장, 남망산이 보이고, 하늘과 맞닿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오르는 동안의 내부경관은 양쪽에 좁은 길로 맞닿아 있거나 한쪽은 난간으로 이루어진 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거미줄처럼 이어진 전깃줄, 바닷바람에 펄럭이는 빨래, 녹슨 창살에 통영과 바다, 따뜻하고 정감 있는 마을을 대표하는 다양한 장르의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통영대교, 음악, 꽃, 어린이, 바다 이미지 등 바다를 끼고 있는 통영만의 이미지로서 지역성을 살리고 골목길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영천 별별마을의 외부경관은 앞뒤 산속에 들과 실개천이 흐르는 농촌마을로 내부경관은 옛날 정미소, 우물, 정류장, 토성, 공가, 폐가 등 옛 모습이 많이 남아 있다.



Figure 2. Picture of target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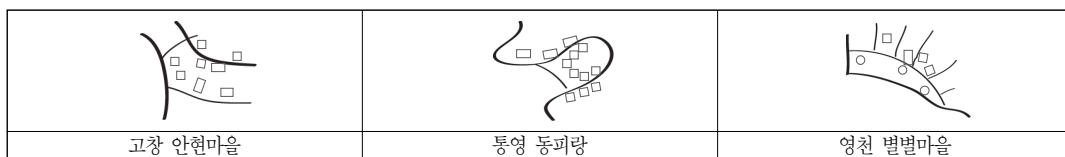


Figure 3. The Village's Structure of target area

시안 미술관과 연계하여 동네 미술관의 개념으로 자연과 문화유산을 연계한 예술 루트를 생성하였다. 다섯 개의 길은 걷는 길, 바람길, 스무골길, 귀호마을길, 도화원길로서, 오행적 순환의 원리와 마을 역사, 이야기를 담은 예술작품들이 점형으로 산재되어 있다. 목련, 별자리, 권응수 장군과 20의병, 정자, 농촌 풍경, 복숭아 밭, 들녘, 산자락 등의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자원으로 지역성을 표현하였다. 특히, 기존의 페인트로 칠한 벽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벽돌, 도자기 조각품 등 입체감이 있는 부조벽 형식의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하였다.

다. 마을 미술사업을 통한 담의 변화와 공동체 결속을 위한 방식

고창 안현마을은 마을이 연결되어 있어 담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커뮤니티 확보를 위한 방식으로 내부의 공동체 결속을 위해 마을 전체로 연결되는 하나의 비슷한 단위의 담을 설정하였다. 각 주택 담의 존재 유무보다 전체적인 통일된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는 것이다. 지역성에 바탕을 둔 마을 전체의 아이덴티티 설정을 우선시 한 다음 개별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하나하나씩 부여하였다. 조성하는 과정에서 행정 개입 없이 업체와 주민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고, 아주 작은 계획과 시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집약함으로써 커뮤니티가 구체화적으로 형성되고 지속가능하게 되었다.

통영 동피랑은 불량주택이 언덕에 모여 있어 마을의 구심점이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커뮤니티 확보 방식은 주민들 간에 지켜야 할 필요성을 공유하고 담이라는 매개로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아이덴티티를 위해 통영21과 통영시, 마을 주민들이 협력하며, ‘동피랑 벽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마을기업 ‘동피랑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는 등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영천 별별마을은 각자의 담은 있으나 마을 내부적인 유대관계, 문화적 결속, 아이덴티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방식으로 기존에 있던 공간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해석 해 마을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면서 예술적 공간으로 승화시켰다. 문화적인 부족함에 대해 마을 전체에 문화콘텐츠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점형으로 흩어져 있는 예술작품들 속에 일부로 설정하여 물리적인 담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재료, 패턴, 조형성을 통해 각각의 담을 허물지 않고 전체를 통합하여 보강한 것이다.

라. 마을 미술사업을 통한 담과 소통의 방식

고창 안현마을은 초창기 모델로서 외지 관광객은 물론 지방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데 성공하였으며(<http://blog.daum.net/nannadaero>), 외부 방문자와의 소통을 위해 인물그림이 많이 나타난다. 이 인물은 주인이며, 문패를 대신하고 있다.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소통의 방식으로 담은 대문의 역할과 함께 대화의 순서에 맞는 사회적인 과정으로서의 절차이다. 또한, 국화꽃 그림과 실제 꽃, 인물 그림과 실제 인물을 통해 집안 삶의 외부화가 가능해지며, 시각적인 경관의 체험과 미의식에 다양함을 제공하여 방문자들로 하여금 마을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개입되도록 하였다.

통영 동피랑은 철거 대상이었던 동네가 벽화로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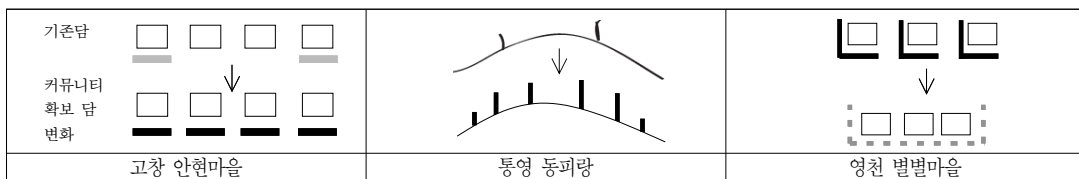


Figure 4. Community setting method of target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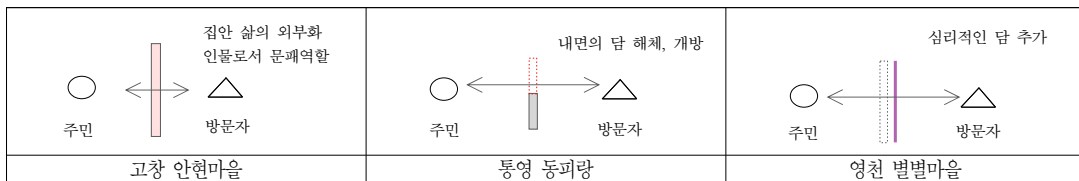


Figure 5. Communication method of target area

여 주말이면 200~300명의 여행객이 찾는 통영의 새로운 명소로 변모하였다(http://s0899.blog.me). 각각 구성단위(unit)의 그림 있는 담으로 마을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가함으로써 높은 언덕길을 오르게 하는 추진력을 제공하고 외부 방문자와의 소통을 보강해 주고 있다. 특히, 소외지역이었던 산동네임을 감안하면 새로운 문화적인 담이 있음으로 해서 바깥과 안을 소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물리적 담을 통해서 외부 방문객에게 삶의 모습을 내보임으로 내면의 담을 해체하거나 열게 하는 경우이다.

영천마을 경우는 각 가구의 담이 외부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어 폐쇄성이 높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폐쇄된 마을 내부를 열어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서 길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자원을 스토리텔링하여 물리적인 담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심리적인 담을 첨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어린 시절 낙서의 연장선상에서 추억을 꺼내어 소통하고, ब्ल럭 담 사이사이로 집안을 들여다보며 3개의 마을에 흩어져 있는 지역 고유의 역사와 지리, 생태, 문화적 특성을 활용해 테마가 있는 문화와 예술이라는 키워드로 통합하게 하고 새로운 소통의 사회적 과정을 조성하고 있다.

3. 사례분석의 종합

마을 미술사업이 이루어진 고창 안현마을, 통영 동피랑, 영천 별별마을의 사례들을 지역성, 공동체의 결속,

소통이라는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지역성은 경관, 지역자원, 맥락성으로, 공동체적 결속은 방식, 관계, 연대감, 커뮤니티 활동과 조직으로, 소통은 주민과 외부방문자의 관계형성 기회와 마을 브랜드 인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정리 해보면 Table 3과 같다.

4. 마을 미술사업의 전개방향 논의

마을 미술사업의 담은 시각적 그림의 내용보다는 지역의 자원을 통한 상징적인 의미가 전달되는 지역성과 사회적인 기능역할,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커뮤니티의 형성에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외부 방문자의 입장에서 조성되기 쉬우나, 사실은 주민들이 공공미술의 작품을 통해서 지역성과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경관개선, 공동체적인 삶, 공동체적 활동이나 생활방식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과 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너무 개방적이거나 지역성에 바탕을 두지 못할 경우 마을은 해체되기 쉽고, 너무 닫혀 있으면 마을이 소통을 하지 못하여 지속가능하지 않다. 주민 간에는 마을 내부적인 아이덴티티를 열어 문화적인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 각자의 담이 필요하며, 주민과 외부 방문자 간에는 외부에서 담을 인식하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술사업의 생산물인 담과 경관, 내부적인 요

Table 3. Comprehensive case analysis

구분		고창 안현마을	통영 동피랑	영천 별별마을	
공공미술	주체	2006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	2007 푸른통영 21 추진위원회	2011문체부 마을미술프로젝트	
	역할	지붕개량, 취락구조개선	재개발의 유보수단	지역활성화	
	매체	지붕, 벽	벽	벽, 조형물	
지역성	경관	외부: 바다, 소요산 내부: 시문학관, 마을회관	외부: 강구항, 남망산 외부: 좁은 골목길, 언덕	외부: 삼부천, 백학산 내부: 5개의 길, 옛날 농촌모습	
	지역자원	국화, 시, 인물	꽃, 바다, 시	마을역사, 이야기	
	맥락성	꽃, 나비, 인물, 언어, 실제 초화로 개별 아이덴티티를 합체 전체가 되도록 조성	바다를 끼고 있는 통영과 소외지역 고향의 따스함을 표현	마을 풍광,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촌경관을 재료, 패턴, 조형성을 달리 하여 표현	
커뮤니티	공동체의 결속	방식	비슷한 담으로 마을전체 연결	마을의 구심점 설정	마을 전체를 통합하여 보강
		관계	자연의 담으로 개별과 마을전체 아이덴티티 설정	아이덴티티를 프로그램으로 제시	내부소통, 문화적 결속, 아이덴티티 강화
		연대감	주민들이 사업추진, 진행	주민들 간에 지켜야 할 필요성 공유	주민들 문화생산과 소비자 역할
		커뮤니티활동 조직구성	국화 축제 활성화	마을기업운영, 동피랑 축제 개최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소통	주민간의 관계형성 기회	집안의 삶 외부화	문화적인 아이덴티티	폐쇄적인 공간에서 개방성	
	외부방문자 관계형성 기회	인물로서 문패역할	언덕길을 올라 구경할 수 있게 하는 추진력	심리적인 담 첨가	
	마을브랜드 인지	외지관광객과 지방도 시선을 끄는데 성공 SBS '패밀리가 떴다' 촬영지	하루 200-300명 관광객 방문 2014지역브랜드대상수상	시안미술관, 오토캠핑장과 연계사업으로 마을 방문객수 증가 홈페이지 운영	

인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을 미술사업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이나 경관의 개선으로 사회 복지적 가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보이며,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IV. 결 론

노후한 마을에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마을 미술사업은 예술 활동을 통해 해당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고취하며 물리적 환경을 창조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주민 사회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소통과 다양한 참여 중심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실제 마을 미술사업을 시행한 사례에서 바람직한 미적 환경조성과 커뮤니티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성, 공동체 결속, 소통의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고창 안현마을은 국화, 시(poem), 인물의 지역자원을 통해 지역성을 표현하였으며, 비슷한 담으로 마을 전체를 연결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인물그림으로 문폐역할을 하여 소통하고 있었다. 통영 동피랑은 바다, 꽃, 시 등 다양한 그림을 통해 소외지역에 고향의 따스함을 표현하여 지역성을 나타내고, 벽화를 통해 주민들 간에 지켜야 할 필요성을 공유하는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내면적인 담을 해체하거나 개방하여 소통하고 있었다. 영천 별별마을은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촌경관을 재료, 패턴, 조형성을 달리하여 지역성을 표현하였고, 마을 전체를 통합하여 보강하는 것으로 외부세계에 대한 경계보다는 내부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구축하였으며, 문화예술의 일부로서 물리적인 담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인 담을 추가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한계는 사례연구의 수가 제한적이고 사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한계성 및 특수성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마을 미술사업에 있어서 공동체와 결부되는 일반적인 전개방향이라고 확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마을 미술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을 담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공동체적 삶에 대한 새로운 모델제시를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연구에서는 사례대상지의 수를 늘리고, 커뮤니티와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성과 다각적인 측면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주1) 담이란 ‘건물 대지의 경계 또는 시설물 주위를 둘러막아서 보호하는 건축물’을 의미하며, ‘막는다(defend)’, ‘둘러싼다(enclose)’ 는 개념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의 담이란 외부공간에서 소유의 경계구분을 표시하거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 수단에서 시작하며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분리시키는 듯하면서 동시에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의미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간의 체계를 주고 있는 외부공간의 담을 의미한다(이윤정, 2005).

Reference

1. Ahn H. J., 2010, A Study on the Publicity Understanding of Public Art and its Cultural and Educational Value.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24(2): 371-396.
2. Cheon H. S.,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and the Community to Promote Livability of Community. Housing Studies 9(1): 143-172.
3. Choi B. D., 2000, Spatial Characterization of the Quality of Life and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80: 321-340.
4. Fang X. and M. H. Lee, 2011, Culture Contents Service Design for Regional Revitalization(2) -Focusing on Contests Development of Creative Community Design for Culture Village-.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12(4): 175-185.
5. Ha S. K. and J. I. Kim, 1997,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Policy Themes and Indicators. Journal of Korea Planners Association 32(5): 155-168.
6. Hillery G. A., 1955,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2): 112-123.
7. Hong I. S. and J. Y. Jung, 2004, A study on the Formation of Communities by Locality in the Urban Housing Complex.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Proceedings 24(2): 27-30.
8. Hong H. C., 2011, A Critical Study on the Public Art led by the Government through the Maeul-misul Project Analysis. Institute of Humanities, Chosun university 42: 451-495.
9. Hong S. G., 2009, A Study on the Formation of Apartment Community with Online Community as a Medium.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9(1):

- 227-270.
10. Jo I. S. and H. K. Shin, 2010, A Study of the Evaluating Factors of the Community for the Planning of a Sustainable Housing Complex. Journal of the Korea Housing Association 21(10): 161-169.
 11. Kim H. J., 2010, New Trend on the Types of Public Art Projects Since 2000 in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0(8): 198-208.
 12. Kim H. J., 2010, Evalua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Based on the View of Community Activities. Ph D. Thesis, Hanyang Univ.
 13. Kim J. J., 1991,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Consciousness of Inhabitant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7(5): 261-268.
 14. Kim Y. J. and N. H. Park, 2013,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f Community Evaluation Indicator. Journal of Korea Planners Association 48(5): 81-105.
 15. Kong J. H., 2011, Public Art as a Social Process.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12(3): 13-23.
 16. Lee H. R., 2013, A Study on New Paradigm of Community Media Education. Ph D. Thesis, Chungang Univ.
 17. Lee S. K., 2012, What Public Means in Public Art and the Changing Shapes of Genre in the Urban Setting. Art History 39: 333-366.
 18. Lee W. H. and C. S. Lee, 2007, A Study on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of Future-Oriented Community Service Facilities. Korea Planners Association 42(4): 95-113.
 19. Lee Y. C. and K. H. Kim, 2013, A Comparative Case Study of Neighbourhood Making for Promoting a Local Amen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9(2): 129-138.
 20. Lee Y. J., 2005, A Study on the Korean Traditional Fences and their Representation in the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 In the Case of the Korean Traditional Fences of Seoul, Korea. MS Thesis, Seoul Univ.
 21. Nam K. B. and M. Y. Nam, 2013, The Publicness of Public Art : Focused on the "Golden market, Golden Age" Public Art Project.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16(1): 118-134.
 22. Oh S. H. and Y. H. Han, 2011, A Case Study of Public Art through Change and Expansion. Korean Institute Spatial Design 6(1): 75-82.
 23. Park E. Y., 2008, A Study on Planning Rural Landscape Based on the Layer Technique - Focusing on Anhyun Village in Gochang, Guwau Village in Taebaek and Mulgeon-ri in Namhae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4(4): 11-19.
 24. Sung H. J. and B. K. Jeon, 2006, A Study on the Residents' Sense of Community in Rural Areas. Social Welfare Policy 27: 149-170.
 25. <http://blog.daum.net/nannadaero>
 26. <http://s0899.blog.me>
-
- 접 수 일: (2014년 8월 20일)
 수 정 일: (1차: 2014년 9월 4일, 2차: 9월 18일
 3차: 9월 24일)
 게재확정일: (2014년 9월 24일)
 ■ 3인 익명 심사필